

#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개념 및 기독교적 관점 고찰: 북한의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시론

최용준(한동대 글로벌에디슨학부)

## 논문 초록

인간은 누구나 평등한 권리를 가지며 장애인 또한 그러하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그렇다면 무엇이 잘못되었는가? 특히 최근에는 북한의 인권이 국제적인 이슈로 부상하고 있으며 그 중에도 북한 장애인 인권은 가장 열악한 상황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노력으로 우선 본 논문은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역사적으로 고찰하고 기독교 세계관으로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심층적으로 다루고 있다. 첫째, 장애인에 대한 개념이 어떻게 변천되었는지 역사적으로 살펴본 후 둘째로 기독교적 관점, 즉,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의 틀에서 고찰하되 특별히 ‘하나님의 형상’을 중심으로 제시하겠다. 마지막으로 북한의 장애인 인권 개선을 위한 함의를 살펴본 후 논의의 결론을 맺는다.

**주제어:** 장애인, 역사적 개념, 기독교 세계관, 하나님의 형상

## I. 서론

2006년 8월, 국제연합(United Nations)은 처음으로 글로벌한 장애인 인권협약(CRPD: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을 발표했다. 하지만 아직도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기본 인권이 침해되는 경우가 많이 있다. 특히 북한은 그 대표적인 사례로 언급된다. 나아가 장애인의 인권은 더욱 그러하다. 그런데 최근 북한의 장애인 인권 상황이 국제적 이슈로 부상하고 있다. 북한은 지난 2003년 6월, 최고인민회의 상임위원회에서 북한 최초의 장애인 관련 법률인 ‘장애자보호법’을 채택하고 장애인의 인격과 사회, 정치적 권리와 자유를 건강한 공민과 똑같이 보장한다고 명시하였다. 그 후 2007년에는 조선장애자보호연맹 산하에 조선장애자예술협회를 설립해 장애인 학생들의 성악 및 무용 교육에 투자해왔으며 2009년 4월에는 헌법을 개정하면서 몇 가지 인권 관련 법규도 제정하였다. 2012년에는 런던 장애인올림픽에 최초로 선수단을 파견했으며 2013년 7월에는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도 서명하였고 11월에는 장애인 복지사업을 강화할 목적으로 장애자보호법을 개정했다. 나아가 12월에는 청각장애인들의 사회 활동을 지원하는 차원에서 조선농인협회가 발족하여 청각장애인들을 위한 자막·수화방송 제작, 수화사전 발간 등을 추진 중이다. 2014 인천 장애인 아시안게임에도 선수단을 파견하였으며 2014년 10월에는 영국과 프랑스에 장애인예술단을 보내 공연을 계획하는 등 나름대로 장애인 문제에 대해 전향적인 모습을 보이고 있다. 2014년 9월 23일 뉴욕에서는 유엔총회 북한인권 관련 장관급 회의가 열렸는데 이는 유엔 총회 기간 열리는 첫 북한인권 고위급 회의였다.

북한은 한때 장애인들이 평양에 거주할 수 없게 하는 등 국가적 차별 정책을 이행하였으나 최근에는 장애인의 존재를 인정하고 있다. 하지만 북한은 유엔장애인권리협약에 서명만 했지 비준하지는 않고 있다. 나아가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실질적으로 장애인 인권을 증진시키려는 노력이 필요한데 통일연구원이 탈북민을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 따르면, 2011년 응답자의 77%, 2012년에는 63%의 응답자가 북한에서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심하다고 응답했다(<http://blog.unikorea.go.kr/3757>). 북한 장애인의 인권 상황을 파악하는 일은 쉽지 않다. 그 이유는 일단 자료가 매우 부족하기 때문이다. 어느 정도 가능한 자료는 1999년 북한의 조선장애자지원협회가 발표한 북한장애자실태조사 결과 정도뿐이다.

본 연구는 북한 장애인 인권 증진을 위한 한국과 미국 간 국제 연구의 일환으로 이루어진 것이다. 이를 위해 우선 본고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인 개념을 살펴보면서 그것이 어떻게 변화 내지 발전되었는지를 고찰한 후, 이어 창조, 타락, 구속 및 완성으로 대변되는 기독교 세계관으로 장애인의 인권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 지 ‘하나님의 형상(Image of God)’이라는 관점에서 논의한 후 북한의 장애인 인권 향상을 위한 실천적 함의가 무엇인지 결론을 내리고자 한다.

## II.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개념과 기독교적 관점 고찰

### 1.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개념

#### 1) 장애인의 개념 및 정의

일반적으로 장애인은 신체의 일부에 장애가 있거나 정신적으로 결함이 있어서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 제약을 받는 사람을 말한다(krdic.naver.com/detail.nhn?docid=32319800). 하지만 여기에는 많은 오해가 있다. 일반적인 오해의 예를 몇 가지 든다면 장애인들은 “자급자족하지 못하고 매우 의존적이며, 불쌍히 여

거야 할 대상으로, 무기력하고, 심지어 저주받은 사람들이며, 비장애인들에 대하여 반감을 가지고 있고, 살 가치가 없는 사람들로 일할 수 없기에 그냥 집에 있는 편이 낫고 가정을 가질 필요도 없으며 성적 욕구도 없고, 특별한 의료 및 교육이 필요하며, 비장애인들과 함께 어떤 문화적인 활동을 할 수 없고, 배울 수도 없으며 특히 지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매우 단순한 어린 아이들과 같으며 스스로 어떤 결정을 내릴 수도 없고 어떤 심리적-사회적 장애가 있는 사람들은 폭력적이어서 위험하며 지능 지수도 매우 낮으므로 일반인들과는 다른 의사소통 수단을 사용해야 한다”는 것이다(Lord, 2007: 3). 그러나 이러한 장애인관은 매우 잘못된 편견과 오해에 기인한 것이므로 이들을 좀 더 구체적으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장애인에 대한 개념을 보다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

‘장애’의 개념은 과거 1970년대 이전까지 장애를 질병(disease)으로 보는 관점에서부터 1980-90년대 장애를 둘러싼 환경과의 관계에 기인한 사회적 불이익(handicap)의 관점, 그리고 2000년대 장애를 둘러싼 환경과 이러한 환경을 구성하는 개별요소들과의 관계적인 관점까지 장애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발전적인 개념으로 변화하고 있다. 이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것은 역시 세계보건기구(WHO)에서 발표한 장애 개념이라고 할 수 있다. WHO의 ICIDH(International Classification of Impairment, Disability and Handicap)가 국제사회에서 장애의 보편적인 정의와 기준이 되어왔는데 ICIDH는 70년대에 개발되기 시작하여 1980년에 처음으로 WHO에 의해 공인된 것으로 그동안 장애를 질병이나 신체이상과 같이 의학적 관점에서만 바라보던 것에서 그로 인한 기능적 비정상(impairment) 상태의 결과로 발생하는 활동이나 행동패턴의 제약(disability)으로 인해 야기되는 사회적 불이익(handicap)에 이르기까지 사회적 관점에서 장애를 총체적으로 이해하고자 하는 의도를 반영한 것이다(whqlibdoc.who.int/publications/1980/9241541261\_eng.pdf). 이전의 장애분류는 장애의 문제를 개인에게 국한하고, 의료적 차원에서 신체를 중심으로 분류한 것으로, 장애를 전인적 존재형태를 근거로 체계화한 것이 아니었기에 장애로 적용하기에 어려움이 많았고 사회 환경에 대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점이 지적되었다. 그래서 1997년에 ICIDH-2가 제안되어, ‘기능적 제약’을 ‘활동(activities)’으로, ‘사회적 불리’를 ‘참여(participation)’로 변경하였다. 이는 용어를 긍정으로 표현하고 기본적으로 환경과 개인이라는 상황적 요인(contextual factors)을 포함한 장애 개념을 채택하면서 장애를 개별적, 사회적 모델 개념의 차이로 새롭게 설명하였다(www.sustainable-design.ie/arch/ICIDH-2Final.pdf). 이렇듯 장애의 개념과 정의는 시대의 변천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되어 가며 각 사회의 세계관을 반영한다고 볼 수 있다. 장애를 ‘질병’으로 바라보던 제한적이고 부정적인 관점에서 환경적인 요인을 고려한 긍정적인 관점으로 변화되어 간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2)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개념

고대 역사 속에서 나타난 장애인관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부정적인 이미지가 많은데 이는 그 시대의 상황을 반영한 것이라고 볼 수 있다. 고대인의 당면 문제는 파괴적인 자연과 동물의 공격 그리고 적들로부터 자신과 자기 종족을 보존하는 것이었다. 따라서 한 부족의 구성원으로서 부족의 안정과 단결에 공헌하지 못하거나 이를 저해하는 자는 추방당하거나 생존권마저 박탈당했다. 그러므로 심신의 장애를 가진 자들은 부족의 생존과 안전에 도움을 주지 못하므로 유기되거나 자연도태 되는 것을 당연시했다. 나아가 장애인은 악령이나 귀신이 붙은 사람으로 정죄하였으며, 이러한 관점은 민족에 따라 정도의 차이는 있었을망정 고대사회의 보편적인 장애인관이라고 볼 수 있다(김병하, 1985: 23).

그리스 및 로마시대에도 이들에 대한 이해는 주로 생존과 미신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했다. 그리스인들은 아기가 태어나면 신체검사를 하여 결함이 있는 경우 ‘식충’이라고 하여 산야에 버렸으며 특히 스파르타에서도 ‘리쿠르고스(Lycurgus)법’에 따라 모든 아이는 태어나자마자 신체검사를 받아야 했고, 그 결과 ‘결함 있는 아이’로 판명되면 야산에 내다버려야 했다고 한다. 이 법전에 의하면 국가적 번영과 부강은 인간

최고의 존엄이라는 사상에 입각하여 신체허약, 지능 열등자, 기타 불구자들 산중에 버리도록 허용하였기 때문이다. 로마의 전설적 건설자인 로물루스는 탄생 시에 뚜렷한 장애로 보이는 아동을 광장에서 효수시켰고, 출생 직후에는 건강하였으나 3세 이전에 장애를 수반한 아동의 경우도 살해할 것을 허용하였다. 이와 같이 지배자에 대한 약자의 복종이 도덕과 질서의 표준으로 되어왔던 고대사회에서는 장애를 조롱거리나 학대의 대상으로 밖에는 취급되지 못하였다(대한장애자복지위원회, 1988: 164).

따라서 이러한 장애인들은 동서양을 막론하고 자연히 사회에서 소외될 수밖에 없었다. 이런 의미에서 클랩톤(J. Clapton)과 핏츠제랄드(J. Fitzgerald)는 그들의 역사를 ‘침묵의 역사’이며 그들은 단지 ‘타자(Other)’라고 규정한다([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http://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 간혹 예외적으로 마오리족은 장애인을 정상인으로 받아들였으나 이러한 역사는 쉽게 잊혀졌다. 산업화 이전의 유목 또는 농경 사회에서 장애인들은 보통 가족들과 함께 살았다. 장애가 있기는 하지만 나름대로 해야 할 역할들과 일들이 있었으며 그들은 생존하기 위해 함께 일했다. 가족들과 함께 있을 수 없는 장애인들은 추방되어 생존 자체가 위협을 받았는데 이는 그들이 보통 인간 취급을 받지 못했기 때문이다. 이들은 보통 집이 없거나 가난 또는 수치심으로 다른 지역에 배치되곤 했다. 물론 서양에서는 교회 공동체가 이들을 돌아보며 다양한 구제를 제공하기도 했다. 가령 니케아 종교회의(325년) 이후 기독교의 전파와 함께 종교적 자선 사업정신을 배경으로 자선·동정적 장애인관이 나타나게 되었다(김영환 외 3인, 1995: 22). 나아가 로마 시대의 유스티니아누스 법전에 의하면, 청각장애를 농과 농아로 구분하고 청력 손실 시기에 따라 선천농과 후천농으로 구분하여 그에 따른 법적 권리와 의무한계를 기술하였다. 이점은 청각장애의 이해에 유용한 기준을 제시한 것으로 높이 평가할 만하다. 4세기경 성 니콜라스(Nicholas), 크리소스톰(Chrysostomus), 테숨(Tesome) 등은 정신박약자, 맹인, 지체부자유자 등을 위한 자선 시설을 운영하였고, 11-12세기에는 독일, 프랑스, 영국 등에서 맹인을 위한 숙박소, 병원 등이 세워졌다. 특히 프랑스에서는 루이 9세에 의해 1260년 십자군 전쟁에서 맹인이 된 군인을 위해 설립된 군인원은 맹인을 위한 최초의 공적 노력이다(김병하, 1985: 27).

하지만 산업화와 계몽주의가 일어나면서 보다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 이 시대에 종교적 가치나 방식은 이성과 합리성에 의해 도전받기 시작했던 것이다. 이 시대에 가장 큰 영향력을 발휘한 세계관은 역시 과학주의(scientism)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두 세계관은 장애인들을 불필요한 존재로 사회에 부담만 주는 집단으로 보았다. 따라서 히틀러는 그들을 모두 가스실에 넣어 없애려고 했던 것이다. 후기 산업사회 및 계몽주의 이후에 장애인들은 서구에서 개인적인 불행으로 간주되면서 과학적, 의학적 연구 대상이 되었다. 따라서 ‘장애’란 권력에 대해 중립적이고 객관적인 개념이 되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문제는 개인의 문제이지 사회가 책임져야 할 일은 아니라고 보았다. 나아가 근대 의학이 발전하면서 인간의 몸도 객관적으로 통제할 수 있다고 믿었고 따라서 장애인들은 실패자로 낙인찍혔다. 적절한 물질적 자원에 접근할 수 없는 이들은 결국 구제와 연민의 대상으로 자선 기관의 도움을 받을 수밖에 없었다. 따라서 이들은 항상 의존적이고 비극적인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로 간주되었고 보다 ‘특권’을 가진 사회 구성원들의 자선과 이타주의의 대상일 뿐이었다.

하지만 현대에 들어와서는 ‘장애’란 개념이 보다 사회-정치적 구성물로 간주되면서 권리에 입각한 장애인관(the rights-based model of disability)이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리하여 의존에서 독립으로 강조점이 이동하였고 장애인들도 정치적 목소리를 내기 시작하면서 매우 적극적으로 자신의 권리를 찾으려고 노력하게 되었다. 장애인들은 성차별이나 인종차별과 같은 현상에 대해 저항하면서 인권 및 시민권을 중요한 전략으로 채택하여 자신들의 권리를 찾기 위해 노력했고 그 결과 어느 정도 열매를 거두었다고 볼 수 있다. 가령 1980년대 중반에 호주와 같은 나라는 장애인의 권리에 기초한 입법을 시행했으며 이는 사회 정의 및 차별에 대한 이슈를 대처하기 위함이었다. 따라서 장애를 더 이상 개인적인 ‘의학적 문제’로 보지 않고 공동체의 참여를 통해 장애인들도 취업, 교육, 레크리에이션 등을 누릴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이

권리에 기초한 접근은 정치적 전략을 갖추긴 했으나 여전히 장애인들을 소수 그룹에 한정시키는 한계에서 벗어나지는 못했다. 나아가 ‘정상’과 ‘비정상’ 간의 개념적 장벽은 여전히 견고하게 서 있었으며 따라서 법적인 권리는 있다 할지라도 공동체적으로는 격리되지 않을 수 없었다([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http://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

권리에 기초한 입장은 입법적 변화를 가져오기는 했지만 실제로 장애인들의 삶의 변화는 그리 크지 않았다. 사실 생명공학 및 재생기술이 인간의 육체와 정신 그리고 영혼에 대한 통합적 관점에 위협이 되기 시작했다. 즉 장애는 ‘잘못된’ 유전인자 때문이라는 인식이 확산되면서 그들은 기피, 차별 그리고 심지어 그런 인자는 제거해야 한다는 사회적 반응이 나오고 있다. 그러므로 권리에 기초한 입장은 장애라는 개념을 없애기 보다는 오히려 강화하고 있다는 비판도 받고 있다.

또 다른 입장은 보편주의에 입각하여 장애인들을 바라보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여기서 장애는 사실 하나의 흐름이며 연속적인 조건으로 경계가 분명하지 않고 인간 조건의 본질에 속한다는 것이다. 우리 모두는 삶의 단계에서 언제든지 장애를 경험할 수 있으므로 장애는 지극히 정상적이라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은 인간의 육체적 차이가 인간성의 본질을 왜곡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한다([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http://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

우리의 육체적 수준에서 다양성이란 자연스러운 조건이며 우리는 이러한 점을 환영해야 한다. 하지만 다른 차원에서, 차이란 단지 이데올로기적 구성물이며 실제적 상황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모두 서로 연결되어 있으며 동일한 생명력의 흐름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장애의 역사는 인간이 본질적으로 하나라는 사실보다는 위계질서에 기초한 차별을 강조하는 역사였다. 이제는 이 방향을 역전시켜야 할 때가 된 것이다([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http://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

이러한 관점이 보다 구체적으로 실현된 것은 역시 국제연합(United Nations)을 통해서이다. UN은 만민평등의 원칙 위에 설립되었다. 그러므로 UN 헌장은 모든 인간의 존엄성과 가치를 확증하면서 사회정의의 증진해야 할 기본적인 중요성을 강조한다. 따라서 장애인들도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받게 되었다. UN 총회는 1948년 인권선언을 발표하면서 인권 증진 및 보호를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다. 이 선언의 제 25조는 모든 사람들은 “실업, 질병, 장애, 과부됨, 노령 또는 기타 자신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생계가 곤란할 경우 사회적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나아가 이 인권 선언에 의해 반차별적 원리가 1966년에 여러 국제적 규약들에 의해 확립되었다. 동시에 이 규약들은 나중에 국제인권헌장(International Bill of Human Rights)으로 발전되었다([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2](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2)).

1945년에서 1955년까지 UN 사무국과 경제사회자문단은 장애 이슈에 가장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장애인들의 권리 증진 및 장애 예방과 재활에 집중하였다. 1955년에서 1970년까지 유엔은 복지적 관점에서 사회복지적 관점으로 초점이 이동되었다. 1970년대는 새로운 접근법이 생겨났는데 장애인들의 인권이 국제적으로 인정되기 시작한 것이다([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4](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4)) 그리고 1980년대에는 국가적으로 그리고 국제적으로 장애인들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다양한 시도들이 이루어졌는데 육체적, 정신적 적응을 통해 사회 통합을 증진하고 공동체의 일원이 되게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재활 및 장애 예방을 위한 프로그램들이 시작되었다. 141개국을 대표하는 위원회가 설립되어 장애인들의 사회 경제적 조건, 프로그램, 연구, 정책 및 의사결정, 입법, 전국적인 차원에서 지방 차원으로의 분권화 그리고 개발도상국들을 지원하는 정책의 개발 및 시행이 이루어졌다. 1990년대에는 다섯 번의 유엔 세계 컨퍼런스를 통해 “모두를 위한 사회”의 필요성을 강조하면서 장애인들을 포함한 모든 시민들의 참여를 증진하도록 노력했다. 그 후 2000년대에 들어오면서 장애인들의 권리에 관한 회의에서 다양한 조정을 거친 후 세계보건기구 및 세계은행과 함께 장애에 관한 세계 보고서(World Report on Disability)를 최초로 발간하여 전 세계 장애인들의 상황에 관한 증거들을 검토한 후 이에 대한 대책 방향을 제시했다([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5](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5)).

## 2. 장애인에 대한 기독교적 관점 고찰

### 1) 창조

하나님은 인간을 ‘하나님의 형상(Imago Dei)’을 지닌 귀한 존재로 창조하셨다(창 1:26-27). 하나님의 형상이란 인간이 다른 피조물과는 질적으로 다른 존귀함을 지니고 있다는 의미이다. 즉, 사랑, 은혜, 자비, 창조성 등 하나님과 공유할 수 있는 속성들(communicable attributes)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만물을 다스리며 돌보아야 할 책임 또한 주어졌다(창 2:15). 모든 인간의 평등과 존엄성을 천명하는 인권 사상은 바로 여기에 기초해 있다고 말할 수 있다. 나아가 최초의 인간인 아담과 하와 그리고 천지만물은 하나님 보시기에 매우 좋았다고 성경은 말한다(창 1:31). 따라서 타락 이전까지 이 창조 시대에는 장애인이 없었다. 하지만 인간이 죄를 지을 가능성은 열려 있었으며(*posse peccare*) 그 결과 장애인이 나타날 수도 있었다고 볼 수 있다.

이와 반면에 진화론의 영향을 받은 사회진화론(Social Darwinism)은 ‘힘’과 ‘경쟁’이 사회의 진화를 이끄는 원동력이 된다는 사상으로 역사의 과정을 단지 생존경쟁의 논리로만 이해한다. 따라서 장애인들은 사회에 불필요한 사람으로서 인위적으로 제거해도 아무 문제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기 쉽다. 실제로 2차 세계대전 당시 독일의 히틀러는 진화론적 세계관에 사로잡혀 독일 내의 모든 장애인들을 몰살시키려고 계획했던 적도 있었다(최용준, 2008: 55, 70).

### 2) 타락

인간의 타락으로 피조계 전체는 죄의 영향을 받게 되었다. 창조의 선한 구조자체가 변형된 것은 아니지만 그 발전 방향이 왜곡되어 나타나기 시작한 것이다. 그 결과 장애인도 생겨나기 시작했는데 선천적인 장애인도 있었으나 후천적인 장애인도 생겨나기 시작했다. 나아가 이러한 장애인들에 대해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된 인간이라는 성경적 관점이 아닌 열등한 인간이라는 왜곡된 관점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다.

유대인들 또한 시대적 제한성과 율법적 상황에서 생활하였기 때문에 나름대로 독특하고 차별적인 장애인관을 가지고 있었다. 즉 장애인은 제사장이 될 수 없다는 규제를 두어 장애인에 대한 차별적인 면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레 21:17-23). 장애인들에 대한 부분적인 배려를 하지 않은 것은 아니지만, 궁극적으로 장애의 발생은 율법을 어긴 죄의 대가나 하나님의 저주의 결과라고 인식하고 있었다. 이것은 신약 시대 예수님에게 제자들이 눈먼 사람을 보면서 그가 눈먼 사람으로 태어난 것이 누구의 죄 때문인가라고 물었던 것을 보아도 잘 알 수 있다(요 9:2).

윤삼호·김의수는 일반적으로 장애인에 대해 왜곡된 이미지와 고정 관념을 다음과 같이 들고 있다. 즉 장애인들은 “다른 사람들의 심금을 울려주어야 하는 ‘감동의 이미지’, 늘 불쌍한 존재로 보이는 ‘동정의 이미지’, 장애를 가지는 순간 행복한 삶을 상실한다는 ‘불행의 이미지’, 아픈 데가 없어도 아픈 사람처럼 보이는 ‘병자의 이미지’, 활력과 정력이 소진된 ‘무기력의 이미지’, 이 사회가 요구하는 능력을 갖출 수 없는 ‘무능력의 이미지’, 나이가 들어서도 어른답지 않게 보이는 ‘어린아이 이미지’, 평생 일어서려고 노력해야 하는 ‘재활의 이미지’, 혼자 내버려 두면 위험에 처할 것 같아 불안해 보이는 ‘보호의 이미지’, 스스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것 같은 ‘의존의 이미지’, 일탈을 꿈꾸고 괴팍스러운 ‘아웃사이더의 이미지’, 주변 사람들의 도움에 감사할 줄 알아야 하는 ‘공손의 이미지’, 초인적인 인내와 노력을 요구하는 ‘슈퍼장애인 이미지’, 존재 그 자체가 다른 사람들을 불안하게 만드는 ‘공포의 이미지’ 등으로 인해 장애인들은 삶의 질이

역압받고” 있다고 주장한다(윤삼호·김의수, 2009: 69).

장애인을 단지 ‘동정의 대상’으로 바라보는 예로는 가령 매년 4월 20일 ‘장애인의 날’에 맞추어 각종 ‘장애체험행사’가 시행되고 있는데 주로 휠체어 타보기, 안대를 착용하고 흰 지팡이 짚고 이동하기 등의 프로그램으로 장애인 흉내를 내기도 한다. 비장애인이 장애인의 처지에서 직접 경험해보고 더욱더 장애인을 이해하자는 의도지만 장애인들 처지에서는 해마다 열리는 일시적인 연례행사일 뿐이고 참여자들도 성의 없이 하는 경우가 많아 진정성이 떨어지는 경우도 많다. 일회성 장애체험행사나 장애인을 위한 모금 등은 결국 동정심을 유발하여 장애인들이 원래 의도하지 않았던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오히려 강화시켜 줄 수 있다는 것이다(윤삼호·김의수, 2009: 84).

나아가 현실에서 장애인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 현상에 관해 다른 예를 들면 다음과 같다. 먼저 장애인을 ‘공포의 대상’으로 보면서 이들이 사회의 존속에 위협적이라고 생각한다. 국내에서도 6.25 동란이 끝난 후, 많은 상이용사들이 생활의 어려움으로 폭력을 행사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그 결과 장애인들에게 대해 두려움을 갖게 되기도 했다. 또한 영화 <후크>는 ‘피터 팬’을 미국의 스티븐 스필버그 감독이 재구성하여 영화로 만든 작품인데 여기서 해적 선장 후크는 왼쪽 팔이 절단되어 ‘갈고리 손’을 가진 지체장애인이다. 해적 두목에다가 자신의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어른이면서도 피터 팬과 웬디 같은 아이들을 마구 괴롭히는 못되고 치사한 인물로 묘사된다. 이러한 대중매체의 영향으로 ‘장애인=악당’ 이미지가 각인되어 어른이 되어서도 후크와 비슷한 장애인을 보고 악당 후크의 이미지를 떠올려 장애인의 신체 손상이 그의 외모뿐만 아니라 인간성까지도 규정해 버릴 수 있다는 것이다(윤삼호·김의수, 2009: 86).

또한 장애인을 ‘아픈 환자’이거나 ‘무능력한 존재’로 보게 된다. 가령 학교에서도 장애인은 종종 아픈 사람으로 묘사된다. 장애가 있는 학생을 소개할 때 그나마 장애라는 말을 드러내지 않으려고 노력하는 선생님은 “이 친구는 조금 아픈 친구입니다”라고 하는 경우가 있다. 물론 장애가 아픔 또는 고통을 동반하는 때도 있지만, 장애가 있다는 그 자체가 무조건 아픈 것은 아니다. 실제로 대부분 장애인은 매우 건강한 상태에 있음에도 사회는 이들을 환자 취급하는 것이다. 환자로서 장애인은 생산적이 될 기회를 갖지 못하며 경제적으로도 자급자족할 수 없어 장애인은 늘 보살핌과 원조를 받아야만 하는 존재로 비친다. 따라서 장애를 가진 삶이 비장애인의 삶보다 살 가치가 없는 것으로 인식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다. 장애를 무능력, 미숙함, 의존성 등으로 보는 것은 결국 장애인의 능력을 향상시킬 기회와 자율성을 박탈하게 된다.

그 밖에도 장애를 신의 벌이나 업보로 보는 것을 들 수 있다. 자신의 잘못으로 인해 벌을 받았다고 생각함으로써 장애인과 장애인의 가족은 죄의식와 수치심을 경험하게 된다. 장애인은 신이 자신을 사랑하지 않으며 따라서 자신은 쓸모가 없는 존재라고 생각할 수 있고, 장애를 가진 자식을 둔 부모는 자신이나 서로 원망할 수 있다. 또한 장애의 원인을 전생에 지은 악업의 결과라고 본다면 장애 당사자뿐만 아니라 비장애인에게도 잘못된 고정 관념을 심어줄 수가 있을 것이다.

### 3) 구속

이러한 타락과 장애에 대한 부정적인 인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으로 회복이 가능해진다. 먼저 구약에도 장애인에 대한 하나님의 섭리적 관점이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가령 “누가 사람의 입을 지었느냐? 누가 말 못하는 이를 만들고 듣지 못하는 이를 만들며, 누가 앞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거나 앞 못 보는 사람이 되게 하느냐? 바로 나 주가 아니더냐?”(출 4:11)란 기록이 있다. 일반적으로 구약의 하나님은 진노하고 우리를 두렵게 하며, 벌을 주는 하나님으로 표현되고 있지만 여기서 여호와와는 모세에게 자신이 장애인을 낸 분임을 분명히 했으며 이것은 그 분이 인간을 차별하기 보다는 자신의 주권적 섭리에 의해 장애인도 존재하게 한다는 것을 밝히는 것이다.

또한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에게 각별한 관심과 사랑을 보이셨다. 레위기 19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준수해야 할 사회적인 규범들 중 다음과 같이 장애인들을 보호해야 한다는 말씀이 나온다. “듣지 못하는 사람을 저주해서는 안 된다. 눈이 먼 사람 앞에 걸려 넘어질 것을 놓아서는 안 된다.” 신명기 27장 18절에도 “눈이 먼 사람에게 길을 잘못 인도하는 자는 저주를 받는다”고 말씀한다. 이러한 계명을 잘 지킨 사람으로는 욥을 예로 들 수 있다. 왜냐하면 그는 앞을 못 보는 이에게는 눈이 되어 주고, 발을 저는 이에게는 발이 되어 주었다고 말하고 있기 때문이다(욥 29:15).

다윗이 지체장애인이었던 므비보셋에게 행한 배려는 이것을 더욱 극적으로 보여준다. 사무엘하 9장에 보면 므비보셋은 사울의 손자이며 요나단의 아들이었다. 그는 할아버지 사울과 아버지 요나단의 형제들이 길보아산에서 전사하는 비운을 맞게 될 때 겨우 다섯 살이었는데 유모가 그를 데리고 도망치다가 떨어뜨려 두 발을 다 절게 되었다. 다윗이 왕이 된 후에 그는 왕손이라는 사실이 오히려 두려워 요단강 동쪽 로드밭에 있는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은둔생활을 보냈다. 그러나 다윗은 왕권이 안정되자 사울의 후손이 살아있는지 찾게 되었고 마침내 므비보셋을 발견하자 그를 왕궁으로 불러들였다. 므비보셋이 오자 다윗은 그에게 먼저 두려워하지 말라고 위로하면서 사울의 모든 재산을 찾아 그에게 돌려주는 호의를 베풀었다. 나아가 므비보셋을 자신의 식탁에서 함께 식사하도록 우대하였다. 이것은 사실 다윗이 므비보셋을 자신의 친아들처럼 대우하는 것과 다름이 없다. 이것은 궁극적으로 다윗의 자손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므비보셋과 같이 영적, 육적 장애인들이 모두 하나님의 자녀로 온전히 회복되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참여하게 될 축복을 예표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다.

나아가 선지서에는 장애인들에게 소망을 주는 메시지가 잘 나타나있다. 즉 장차 메시아의 탄생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도래할 것을 예언하면서, 그 날에 청각 장애인이 듣게 되고, 시각 장애인들의 눈이 보게 되며, 지체 장애인은 기뻐 사슴같이 뛰게 될 것이며 언어장애인의 혀는 노래할 것이라고 이사야는 예언하고 있다(사 29:18, 35:5-6, 42:7). 예레미야 선지자도 장차 남은 주님의 백성들이 돌아올 때 그들 중에는 장애인들이 함께 할 것을 예언했다(렘 31:8). 또한 시편 기자와 에스겔 선지자(시 146:8; 겔 34:16)도 하나님께서 장애인들을 회복하실 것을 예언하고 있다.

신약성경에도 예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이사야 61장 1-2절을 인용하면서 “주님의 영이 내게 내리셨다. 주님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셔서, 가난한 사람에게 기쁜 소식을 전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나를 보내셔서, 포로 된 사람들에게 해방을 선포하고, 눈먼 사람들에게 눈 뜸을 선포하고, 억눌린 사람들을 풀어 주고, 주님의 은혜의 해를 선포하게 하셨다”고 하면서 그 예언이 성취되었다고 말씀한다. 그리고 실제로 예수께서 사역하신 내용이 모두 이 말씀을 실행하신 것임을 볼 수 있다. 즉, 하나님 나라가 현재적으로 임했음을 증명하는 사역으로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을 치유하시는 것을 볼 수 있다. 4복음서에 등장하는 장애인들을 보면 한센병 환자, 중풍병자, 혈루증 앓는 여인, 혈기 마른 자, 시각 장애인, 농아인 등 다양하다. 이들은 모두 예수의 치유 능력을 믿고 그 분에게 나아갔을 때 고침을 받는다. 그러므로 예수의 사역에서 장애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일을 드러내는 계기가 된다(요 9:3). 나아가 세례 요한이 감옥에 갇혔을 때 자기 제자들을 예수께 보내어 물어 보게 하였다. “오실 그분이 당신이십니까?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다른 분을 기다려야 합니까?” 그 때 예수께서 대답하셨다. “가서, 너희가 듣고 본 것을 요한에게 알려라. 눈 먼 사람이 보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나병 환자가 깨끗하게 되며, 듣지 못하는 사람이 들으며, 죽은 사람이 살아나며, 가난한 사람이 복음을 듣는다.” (마 11:2-5) 다시 말해 예수께서 장애인들에게 행하신 사역 그 자체가 바로 그 분이 메시아이심을 증명한다는 것이다.

누가복음 14장에도 보면 예수께서 종말론적인 잔치 즉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 누릴 어린 양 혼인 잔치에 대하여 비유로 말씀하면서 우리가 구제하거나 잔치를 베풀 때 어떤 대가를 바라거나 값싼 동정에서가 아니라 가장 값싼 것이 없는 가난한 자들과 장애인들을 초대하라고 말씀하신다. 그들은 값싼 것이 없기 때문에 그것이 우리에게 복이 되어 우리가 부활할 때에 주님께서 값어치 주실 것이기 때문이다. 특별히 21절에 보면 주인이 이것을 명령하고 있다. 그러므로 장애인을 섬기는 사역은 그리스도인들의 마땅



한 의무요 사명이다. 장애인을 섬기는 것은 바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도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22-27절에서 약하고 부족한 지체가 더욱 존귀함을 강조하면서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의 몸을 고르게 하여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하여 돌아보아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즐거워한다고 강조한다. 나아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며 따라서 장애의 유무와 관계없이 새로운 존재가 되었음을 선포한다(고후 5:17). 따라서 우리는 장애인을 단지 치유의 대상이나 동정의 대상으로 보는 차원에 머물러서는 안 된다. 오히려 장애인을 통해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목적에 초점을 두어야 한다.

나아가 우리는 장애인들과 함께 더불어 사는 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의 실재가 무엇인지 보여 줄 수 있어야 한다. 복음서에 보면 장애인이어서 자신의 힘으로 어찌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지만 주변 사람들이 도와주는 장면들이 자주 나타난다. 즉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과 협력하여 회복을 이루는 모습들이 나타난다는 것이다. 가령 중풍병에 걸린 사람을 침상에 누인 채로 무리들이 예수에게 데리고 와 고쳐 주기를 청하자 예수께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치유해 주셨다(마 9:2). 많은 무리가, 걷지 못하는 사람과 지체를 잃은 사람과 눈 먼 사람과 말 못하는 사람과 그 밖에 아픈 사람을 많이 데리고 예수께로 다가와서, 그 발 앞에 놓았다. 그러자 예수께서는 그들을 고쳐 주셨다. 그래서 무리는, 말 못하는 사람이 말을 하고, 지체 장애인이 성한 몸이 되고, 걷지 못하는 사람이 걸어 다니고, 눈 먼 사람이 보게 된 것을 보고 놀랐고,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마 15:30-31). 이와 같이 장애를 지닌 사람들은 자신의 능력으로 부족한 부분을 비장애인들의 도움으로 해결하고 있다. 상생적 관계의 측면에서 장애인이 사회에서 분리되거나 소외되지 않고 주위의 비장애인들과 함께 사회적으로 통합되는 관계를 볼 수 있는 것이다. 이를 통해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을 경험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는 장애인들을 차별하거나 소외시켜 분리해서는 안 되며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그들에게 진정한 이웃이 될 수 있어야 한다.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장애인들을 사랑하시고 치유하실 뿐만 아니라 그들을 귀하게 사용하신다. 인간적으로 볼 때 희망이 없던 장애인들이 예수를 만나 변화를 받고 하나님 나라의 그릇들로 크게 쓰임 받은 것을 우리는 많이 볼 수 있다. 보지도 듣지도 말하지도 못했지만 많은 사람에게 용기를 준 헬렌 켈러(Helen Keller: 1880-1968), 시각장애인이지만 <실락원(Paradise lost)>이라는 불후의 명작을 남긴 영국의 존 밀턴(John Milton: 1608-1674), 또한 보지 못하지만 우리가 즐겨 애창하는 주옥같은 찬송가를 수없이 작사했던 크로스비(Fanny Jane Crosby: 1820-1915) 여사와 현재 전 세계적으로 가장 큰 장애인 사역을 하고 있는 조니 에릭슨 타다(Joni Ericsson Tada) 그리고 우리나라에도 이에 못지않은 송명희 자매, 세계밀알선교단을 이끌고 있는 이재서 박사 등이 있다.

미국의 조니 에릭슨 타다 여사는 전신마비 장애를 극복하고 입으로 글을 쓰고 그림을 그리면서 훌륭한 작가로, 화가로, 웅변가로, 그리고 JAF (Joni And Friends, [www.joniandfriends.org](http://www.joniandfriends.org))라는 단체를 조직해 전 세계의 장애자들을 돕기 위한 활동을 활발히 하고 있다. 그러면서 그녀의 자서전이 조니(Joni)라는 이름으로 나오고 그녀의 드라마틱한 삶이 같은 제목으로 영화화되자 그녀는 일약 세계적으로 유명한 사람이 되었다. 미국에서 3년 반 정도 장애인 협회 회장으로 있으면서 미국의 장애자 법을 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 매일 전 세계를 향해 “조니와 친구들(Joni and Friends)”라는 제목의 라디오 프로그램을 진행하며 미국의 유명한 기독교 잡지인 월간 무디(Moody Monthly)의 칼럼니스트로 일했으며 세계복음화로잔 위원회에서 장애인 선교위원회의 위원으로 활약하고 있다. 그 외에도 여러 선교 단체에 자문위원으로 일하고 있으며, 그녀가 쓴 책은 거의 20권이 넘고 기타 여러 가지 다양한 비디오나 그녀의 찬양을 담은 CD, 그녀가 그린 그림을 담은 카드 등이 제작되어 판매되고 있다. 이 분은 현재 전 세계의 장애인들에게 도움을 주고 있으며 그들에 대한 하나님의 관심과 사랑을 일깨워 주는 귀한 일을 하고 있다. 특별히 ‘전 세계를 위한 휠체어(Wheels for the World)’라는 프로젝트로 휠체어를 모아 동구권과 아프리카에 보급하면서 복음을 전하고 있다.

또한 네덜란드에는 장애인들로만 구성된 요스티 밴드(Josti Band, jostiband.nl)라는 오케스트라가 있다. 본 오케스트라는 1966년에 발족하여 지금까지 화란 국내뿐만 아니라 불란서, 독일 및 스위스까지 순회연주를 할 정도로 유명하다. 이 오케스트라는 170명의 장애인들로 구성되어 있지만 각종 장애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할 수 있는 악기들이 하나씩 있다. 어떤 뇌성마비 장애인은 트라이앵글만 치고, 다른 장애인은 음표별로 색깔이 다른 스티커를 붙여 연주하기 쉽게 만들어 놓고 자신이 치는 키보드에도 각 음정별로 같은 색깔을 칠해 그 색을 보고 연주한다. 한사람씩 따로 보면 참으로 보잘것없지만 놀랍게도 전체적으로는 오묘한 조화를 이루며 훌륭한 심포니를 만들어 낸다. 연주에 쓰이는 각종 악기들은 기존의 것들을 장애인들의 특성에 맞게 개조하였고 자체적으로 개발한 것도 있다. 이들은 깔끔한 연주복을 입고 캐럴 송, 흥겨운 민요 그리고 가스펠송들을 연주한다. 이들은 모두가 장애인이다. 그러나 정상인만큼의 능력이 없는 이 사람들이 함께 모여 엄청난 감동을 주는 화음을 만들어낸다. 그들이 할 수 없는 부분에 관심을 두면 낙심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직도 주어진 남은 가능성에 초점을 두면 그것으로도 얼마든지 힘을 합쳐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창조할 수 있다는 것이다.

독일에도 이러한 관점을 가지고 만든 독일 최대의 사회 복지타운인 ‘베헤<sup>1)</sup>’이 빌레펠트라는 도시에 있다(www.bethel.de). 1872년에 보델슈빙(Friedrich von Bodelschwingh) 목사가 간질환자들과 정신적, 영적인 질병 및 장애를 가진 환자들을 치료, 수용하기 위해 시작된 시설이 오늘날에는 독일이 자랑하는 최대 규모의 복지타운으로 성장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많았으나 이 보델슈빙 목사의 헌신적 노력으로 이 사역을 계속하자 이것이 조금씩 알려지면서 많은 교회 성도들이 돕기 시작했고 나중에는 이 환자들을 전문적으로 돌보는 수녀들이 생겨났으며 환자들도 단지 결핵환자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종류의 장애인들이 들어오게 되었다. 현재는 독일 정부와 독일 국가 교회 그리고 개인 및 여러 단체에서 후원하여 세계적으로 자랑할 만한 복지시설을 갖추었다. 특히 간질병 치료에 대한 전문적인 기술이 축적되어 세계적으로도 유명하다. 그 외에도 마약중독자들과 뇌성마비, 지체장애자 등 모든 종류의 장애인들을 위한 시설과 이들을 후원하는 의료시설, 그리고 그들을 돌보는 수녀들과 직원들을 위한 주거시설, 그리고 신학교 시설 및 기숙사 등이 완벽하게 갖춰져 있다. 장애인들은 각기 장애의 정도에 따라 구분되어 수용되어 있다. 거주할 집이 없는 사람들, 노인들,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음을 얼마 남기지 않은 환자들도 호스피스 치료와 간호를 받고 있고 재가 장애인으로 통원 치료를 받는 분들도 있다. 또한 현재 미국, 동구권 그리고 아프리카의 탄자니아 등 세계의 다른 여러 나라들과 국제적인 교류도 활발하다. 장애인과 정상인이 함께 통합적으로 살아가는 이상적인 복지타운으로 삶, 직업, 여가생활 등이 모두 이곳 안에서 이루어진다. 장애인과 이들을 헌신적으로 섬기는 이 시대의 선한 사마리아인들이 함께 그리스도의 사랑을 나누며 살아가는 ‘베헤’은 진정 하나님이 계신 집이요, 작은 천국처럼 보인다.

#### 4) 완성

하나님 나라, 즉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나라에는 더 이상 이러한 장애가 있을 수 없고 영원한 축복만이 있을 것이다(계 21:1-4). 그러므로 우리도 장애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섬기는 사역을 계속해나가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도 하나님 나라의 귀한 백성이요 이 땅에서 동역자로 함께 일해야 한다.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최상의 세계에 들어가게 될 것이다.

### III. 남북한 장애인의 인권상황 비교

1) 창세기 28장에 나오는 지명으로 ‘하나님의 집’이라는 뜻.

1) 남북한 장애인 관련 기본법 비교

남한의 장애인 복지법과 북한의 장애인 보호법은 남북한 장애인에 대한 태도와 정책의 기본틀을 살펴볼 수 있는 자료로, 그 주요 구성과 내용은 아래와 같다([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

표 1: 남북한 장애인 관련 기본법

	대한민국	북한
법안명	장애인 복지법	장애자 보호법
구성	총 8장, 89조로 구성 1장 총칙	총 6장, 54조로 구성
장별항목	2장 기본정책의 강구 3장 복지조치 4장 자립생활의 지원 5장 복지시설과 단체 6장 장애인보조기구 7장 장애인복지 전문 인력 8장 보칙 9장 벌칙	1장 장애자보호법의 기본 2장 장애자의 회복치료 3장 장애자의 교육 4장 장애자의 문화생활 5장 장애자의 노동 6장 장애자 보호 사업에 대한 지도통제
장애인의 정의	장애인이란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는 자를 말한다.	오랫동안 장애자는 육체적, 정신적 기능이 제한 또는 상실되어 오랜 기간 정상적인 생활을 하는데 지장을 받는 공민이다.
성격	규정성격이 강함	지도적인 성격이 강함
특이점	실제적 규정 자립생활에 대한 내용 포함(개정) 법령과 부칙 포함	영역별 규정 보호 사업에 대한 별도규정 마련
구성	46개 조항의 시행령 68개 조항의 시행규칙	

먼저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을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1장 ‘총칙’에서는 장애인복지의 기본이념은 장애인의 완전한 사회 참여와 평등을 통해 사회통합을 이루는데 있음(제3조)을 밝히고 있으며, 장애인의 정의, 중증장애인의 권리와 여성장애인의 권익 등을 명기하고 있다. 나아가 국민과 국가의 책임을 명시하고 있으며, 장애인복지기관을 ‘국가(보건복지가족부 장관)와 지방자치단체(특별시장, 광역시장, 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제9조)’라고 명기하고 있고 장애인복지 조정위원회, 장애인복지위원회, 지방장애인복지위원회와 복지 전문 인력에 대해서도 명시하고 있다.

2장에서는 장애인복지의 방향을 ① 장애 발생 예방 ② 의료 및 재활치료 ③ 사회적응훈련 ④ 교육 ⑤ 직업 ⑥ 정보에의 접근 ⑦ 편의시설 설치 ⑧ 안전대책의 강구 ⑨ 선거권 등 행사의 편의 제공 ⑩ 주택 보급 ⑪ 문화 환경의 정비 ⑫ 복지연구 등의 진흥 ⑬ 경제적 부담의 경감 등으로 구성하여 분야별로 지정하고 있다.

3장에서는 장애인실태조사, 장애인등록과 판정, 시설입소에 대한 규정과 교육비 및 의료비 지원등과 같은 각종 지원제도와 장애인생산품, 장애수당 및 보호수당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의 재활 및 자립생활의 연구에 대한 규정을 두어 자립생활을 위한 연구를 지원하도록 하고 있다.

4장에서는 자립생활지원, 중증장애인자립생활센터, 활동보조인등의 지원서비스, 장애 동료 간 상담의 항목을 두어 장애인자립생활과 그에 대한 지원을 위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있다.

5장에서는 장애인복지시설의 설립과 운영, 폐쇄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장애인 복지단체를

보호/육성하도록 하고 있으며 그 활동을 지원하고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하기 위하여 장애인 복지단체 협의회를 설립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6장에서는 장애인보조기구의 교부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며, 보조기구의 연구개발, 생산, 제조업체에 대한 내용들을 규정하고 있고 7장에서는 인력에 대한 규정과 응시자격, 교육, 자격정지 등에 대해 다루고 있으며, 자격증 수수료에 대한 규정도 하고 있다. 8장에서는 복지시설의 비용문제와 장애인지급품의 압류금지, 장애인법정대리인에 관한 규정 등을 담고 있으며 9장에서는 범법사항과 과태료 등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이와 반면에 북한의 장애인보호법을 살펴보면 1장에는 장애인에게 유리한 생활환경과 조건을 마련해야한다는 것을 골자로 하는 법의 목적과 장애인에 대한 정의, 장애예방과 정기적인 실태조사에 대한 의무 등이 명시되어 있고 2장에는 '회복치료'(재활)의 중요성을 언급하면서 회복치료를 위한 각종 지원책이 명시되어 있다. 보조기구의 생산과 품질에 대한 규정도 있다.

3장에는 장애인이 의무교육에서 제외되지 않도록 명시되어 있으며, 시각장애인, 청각장애인 등을 위한 특수학교의 운영에 대해서도 명시되어 있으며 4장에는 장애인들이 문화 및 체육 활동에서 소외되지 않도록 지원 방안이 명시되어 있으며, 각종 보도 및 출판에서도 소외되지 않도록 관련 규정이 포함되어 있다.

5장에는 장애인이 사회구성원으로서 긍지를 갖고 살아갈 수 있도록 노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이 마련되어 있으며, 노동능력을 완전히 상실한 장애인에게는 보조금이 지원될 수 있도록 명시되어 있고 6장에 대한 지도통제'에는 장애인 보호 사업을 실시하기 위한 지원체계의 조직화에 대해서 정리되어 있는데 특히 장애인의 날도 정하도록 명시되어 있다.

남북한의 장애인 관련 기본법을 비교하면서 이법제는 양자가 거의 유사한 기술을 하고 있다고 본다. 즉, 장애인의 문제를 인권의 관점에서 접근할 때, 중시되는 것은 손상 자체가 아니라 손상을 사회적 장애로 만드는 문제, 즉 장애에 대한 사회적 모델인 바, 이러한 관점이 남북 모두에게 충분히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이법제, 2008:

[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

나아가 그는 북한의 '장애인 보호'라는 규정을 인권적 차원에서 검토해 보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은 자립하기 현저히 곤란한 중증 장애인에 한하여 '보호'의 필요를 제시하고 있다는 점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고 주장한다.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에 대한 교육, 문화, 직업적 지원을 '기본정책의 강구'라는 하나의 장에서 언급하고 구체적인 정책들은 다른 유관 법률들, 가령 '편의 증진법', '고용촉진법', '특수교육법' 등의 형태로 소화하는 반면 북한의 경우 장애인보호법 대부분의 내용이 각 분야의 정책방향을 제시하는데 할애되고 있어 남한의 장애인복지법 2장에 해당하는 내용을 기술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는 것이다. 나아가 남한의 장애인복지법의 4장, 5장, 7장 등은 북한의 경우 전혀 언급되지 않는 부분이다. 특별히 장애인의 자립생활을 강조하고 이를 위한 장애인자립생활센터 등의 자조단체에 대한 지원을 언급하고 있는 부분은 최근 한국사회의 장애인 시민운동의 인권적 성과가 나타난 것으로서 북한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많은 시사점을 던지고 있는 부분이라고 말할 수 있다(이법제, 2008: [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

## 2) 남북한 장애인 현황 비교

나아가 남한과 북한의 장애인 현황에 대해 보다 깊이 살펴보면 현재 접근 가능한 자료를 통해 본 남북한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은 아래 표와 같다.

표 2: 남북한 장애인의 일반적 현황

남			북			
출현율	2,148,686	4.59%	출현율	763,237	3.41%	
계	2,148,686		계	763,237		
지체장애	933,553	43.45%	지체장애자	296,518	38.85%	
뇌병변장애	150,756	7.02%	청각장애자	168,141	22.03%	
시각장애	198,456	9.24%	시각장애자	165,088	21.63%	
청각장애	185,911	8.65%	중증장애자	68,997	9.04%	
언어장애	10,538	0.49%	정신장애자	37,780	4.95%	
정신지체	56,268	2.62%	기타	26,713	3.50%	
발달장애	3,212	0.15%				
정신장애	82,492	3.84%	유형별			
신장장애	29,720	1.38%				
심장장애	35,184	1.64%				
호흡기장애	23,484	1.09%				
간장애	9,975	0.46%				
안면장애	3,223	0.15%				
장루요루장애	12,614	0.59%				
간질장애	11,235	0.52%				
중복장애	402,065	18.71%				
계	2,148,475		계	763,237		
남성	1,283,020	59.72%	성별	남성	435,045	57.00%
여성	865,455	40.28%		여성	328,192	43.00%
계	2,148,475		계	763,237		
9세 이하	33,772	1.57%	연령별	9세 이하	22,897	3.00%
10대	67,872	3.16%		10대	50,373	6.60%
20대	114,544	5.33%		20대	90,825	11.90%
30대	210,224	9.78%		30대	116,775	15.30%
40대	391,476	18.22%		40대	145,778	19.10%
50대	413,762	19.26%		50대	163,332	21.40%
60대 이상	916,825	42.67%		60대 이상	173,225	22.70%
계	2,148,475		계	763,237		
재가 장애인	2,101,057	97.79%	주거/직업	시설수용	232,787	30.50%
시설 장애인	47,418	2.21%		노동자	181,650	23.80%
				지식인	71,744	9.40%
				농민	59,232	7.76%
				학생	14,501	1.90%
				기타	203,523	26.67%
계	2,148,475		계	763,237		
선천적 원인	85,939	4.00%	장애원인	질병	303,005	39.70%
출산시 원인	15,039	0.70%		선천성	119,064	15.60%
후천적 질환	1,125,801	52.40%		사고	145,015	19.00%
사고	786,342	36.60%		외상	115,248	15.10%
원인불명	135,354	6.30%		약물중독	9,158	1.20%
				기타	71,744	9.40%
계	100.00%		계	100.00%		
배우자	47.10%		간병인	배우자	50.20%	
부모	18.30%			부모	18.10%	
자녀(며느리 사위)	21.70%			아들/며느리	8.60%	
형제자매	3.80%			딸/사위	3.80%	
기타	9.10%			기타	19.30%	
추정수	출현율		거주 지역	거주지역	출현율	
서울	2,101,057	4.50%		황해 벽성군	5.14%	
광역시	398,074	4.13%		강원 통천	3.92%	
중소도시	495,808	4.00%		평남 평원군	3.82%	
읍면지역	618,738	3.84%		강원 원산시	3.09%	
	588,437	6.88%		평남 평성시	2.98%	
				평양시	1.75%	

남한은 2005년 조사자료, 북한은 1999년 조선 장애자지원협회가 6개 지역 표본조사 후 통계 처리한 자료

[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

남북한 장애인 현황에 관해 연구하는 것은 그리 쉽지 않다. 왜냐하면 우선 북한의 장애인에 관한 자료가 거의 없기 때문이다. 한국 장애인인권포럼 대표인 이범재는 장애인 한 사회에서 ‘장애인’을 어떻게 규정하는가에 따라 그 출현율의 차이가 크게 나타난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분석한다. “북한의 장애인 출현율 3.41%는 북한의 공업화나 도시화 또는 사회적 통계의 신뢰도 등을 고려할 때 아주 낮은 수치는 아니다... 하지만 북한의 장애인 출현율을 산출한 근거가 되는 지역별 출현율을 살펴볼 때 매우 우려할 만한 수치를 발견할 수 있다. 남한의 경우 읍면지역의 장애인 출현율이 도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는데 이는 장애인구의 상당수가 노인층에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남한과 유사하게 북한에서도 노인 인구가 많은 읍면지역의 장애인 출현율이 도시보다 높은 것은 당연한 일이다. 그러나 평양시의 장애인 출현율은 북한의 평균 출현율이나 다른 도시에 비해서도 현격하게 낮게 나타나고 있다. 이러한 수치는 여러 증언에서 제시된 장애인의 ‘평양소개’가 수치로 나타나고 있다고 추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이범재, 2008: [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http://www.ableforum.com/webzine-prism/webzine?it_Seq=21&it_SubSeq=348?it_Seq=21&it_SubSeq=348)).

나아가 장애유형의 분류를 보면, 남한이 장애유형 15개와 중복 장애 등 총 16개 유형으로 세분화 되어 있는 반면 북한은 기타 장애를 포함하여 6개 유형으로 나뉘고 있다. 유형의 세분화 과정은 소수인 장애 유형의 복지적 권리 획득을 위한 노력의 성과라는 점에서 볼 때 더 많은 장애유형 구분은 다양한 장애인들의 욕구가 더 많이 표현된 결과라고 말할 수 있다.

장애의 원인을 분석해 보면 남한의 경우 선천적 원인은 4% 정도로 낮은 반면 북한은 15%까지 추정하는데 이는 남북한이 하나의 민족으로 생물학적 차이가 크지 않다는 점을 고려할 때 선천적이라는 기준이 다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후천적 원인의 경우 남한은 사고로 인한 장애가 36%에 이르는데 반해 북한은 19%에 그쳐 큰 차이를 보인다. 하지만 북한도 외상과 합치면 34%로 남북이 거의 비슷하다. 남한은 교통의 발달 및 산업화 등으로 사고로 인한 장애 발생율이 높을 가능성이 많을 것이다.

‘장애인의 인권’과 관련하여 가장 중요한 수치는 주거(남한의 경우), 직업(북한의 경우)에 관한 것이다. 두 개의 분류명이 다르고, 북한의 통계 자료를 충분히 신뢰하기 어려워 단정할 수는 없지만, 북한의 시설수용이 30%에 이르는 것은 매우 중요한 문제이다. 남한의 경우에도 적절한 경제성장, 민주화에 의한 권리의식의 확대 이전까지는 장애인을 가족과 지역사회에 방치하기보다는 집단 수용하는 것이 더 좋다는 인식이 광범위하게 퍼져 있었지만 점차적으로 탈시설과 시설의 소규모화, 지역화가 이루어졌다. 하지만 북한 장애인의 30% 가량이 아직도 수용시설에 있다는 것은 장애인의 인권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점에서 가장 심각한 문제이다.

### III. 결론

지금까지 장애인에 대한 역사적 개념 및 기독교적 관점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장애인에 대한 개념은 역사적으로 매우 다양한 변화를 겪어왔다. 사회에 불필요한 존재들이라고 하는 매우 부정적인 인식에서 최근에는 함께 살아가는 공동체적이며 긍정적인 관점이 더 중요해지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창조, 타락, 구속 그리고 완성이라고 하는 기독교 세계관적으로 장애인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도 고찰해 보았다. 중요한 것은 장애인도 엄연히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 받은 존귀한 존재이며 따라서 비장애인들과 평등하게 대우 받아야 하며 나아가 더 특별한 배려가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또한 이것을 바탕으로 북한 장애인의 인권 상황에 대해 간략히 논의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얻을 수 있는 결론은 결국 우리가 북한의 장애인 인권의 회복을 위해 다양한 방법으로 최선을 다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다.

## 참고 문헌

- 김도현, 2010: 38, 한국여성개발원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4: 22-23
- 김병하 (1985). 『특수교육의 역사적 이해』. 서울: 형설출판사.
- 김영환 외 3인 (1995). 『특수교육학 해설』. 서울: 학문사.
- 대한장애인복지위원회 (1988) 『선진 복지 정책』. 서울: 장애인복지위원회.
- 윤삼호, 김의수 (2009). 『장애의 이해』. 서울: 장애인정책 모니터링 센터.
- 이범재 (2008). “북한 장애인 인권에 대한 소견”, 『프리즘』. 10호, 서울: 한국장애인인권포럼.
- 최용준 (2008). 『세계관은 삶이다』. 서울: CUP.
- \_\_\_\_\_ (2014). 『유럽기독교지성의 흐름과 한국의 디아스포라』. 서울: 예영커뮤니케이션.
- Lord, Janet E., Guernsey, Katherine N., Balfe, Joelle M. and Karr, Valerie L., (2007). *Human Rights. YES: Action and Advocacy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Human Rights Education Series, Topic Book 6, Human Rights Resource Center, University of Minnesota.
- Stiker, Henri-Jacques, (2000) William Sayers (Trans.) *A History of Disability (Corporealities: Discourses of Disability)* University of Michigan Press.
- [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http://www.ru.org/human-rights/the-history-of-disability-a-history-of-otherness.html)
- [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2](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2)
- [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4](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4)
- [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5](http://www.un.org/disabilities/default.asp?id=125)

## ABSTRACT

### The Historical concept of the disabled people and the Christian view

Yong Joon (John) Choi (Handong Global University)

Every human being has the same and equal rights.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not exceptions. However, the reality is different. Often the disabled people's rights are neglected and disregarded. Then, what is wrong? Especially the issue of the human rights in North Korea has recently become a hot potato at an international level. It is known that the situation of the human rights for North Korean people with disabilities are the worst. To tackle this problem, this article deals with the concept of the disabled people from historical point of view first. After that it discusses how Christian worldview understands them from the perspective of creation, fall, redemption and consummation. Here the concept of the 'image of God' stands central. With this basis, a brief survey on the situation of North Korean disabled people, followed by a conclusion.

Key words: disabled people, historical concept, Christian worldview, image of God.